

통합사회A 탐구 보고서 양식

□ 탐구 보고서 목차

제목 : 환경성 질환의 종류와 예방의 필요성 탐구

1. 서론 (배경 및 필요성, 목적, 이론적 배경 또는 선행 연구 분석)

1) 배경 및 필요성

환경성 질환은 환경인자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애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요인들이 해당한다. 이는 개인의 생활 습관과 직업 활동을 넘어 환경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환경성 질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알려져 있으나, 특히 19세기 이후 산업화와 공업화로 대기, 수질, 토양 오염 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부각되었다.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과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요인이 등장하면서 환경성 질환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인간 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만성 대사성 질환, 암, 호흡기질환 등의 발생 원인으로서 환경적 요인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2) 탐구 목적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환경성 질환의 다양한 종류와 그에 따른 예방 방법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환경성 질환의 발생 원인과 환경 유해인자의 상관성을 규명하며, 이를 통해 예방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긴 잠복기와 비특이성의 특성을 가진 환경성 질환의 진단과 예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예방 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까지 주로 집중되었던 고농도 노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환경적 노출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합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이론적 배경: 환경성 질환의 역사와 문제성 대두

환경성 질환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환경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건강 이상을 의미한다. 이는 유전적인 영향 이외에도 식습관, 음주, 흡연 등 다양한 외부 환경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아우른다. 좁은 의미에서는 주로 개인의 생활 습관과 직업적 환경 노출로부터 비롯된 질병을 포함한다. 역학 조사를 통해 환경 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에 상관성이 인정된 질환을 특히 환경성 질환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환경적인 영향이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은 알려져 있었지만, 오랫동안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했다. 19세기 이후 산업화와 공업화의 발전으로 대기, 수질, 토양 오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특히 특정 지역에서 고농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 문제가 부각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새로운 화학물질의 등장으로 과거와는 다른 환경요인이 중요시되고 있다. 높은 농도의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낮은 농도의 환경 위해요인이 글로벌 문제로 대두되어, 환경성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인간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적 요인이 질

병의 원인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유전적 영향, 개인의 생활습관, 노화뿐만 아니라 환경적 유해요인도 질병 발생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어, 만성 대사성 질환, 암, 호흡기질환, 면역질환 등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성 질환은 질병과 원인 간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고,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긴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석면노출에 따른 환경성 질환에 대한 보상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시멘트 분진에 의한 질병에 대한 인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에는 주로 사업장에서의 고농도 노출 근로자에 중점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일반 주민의 환경적 노출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합의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환경성 질환은 과거와는 다른 환경요인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로, 전 세계적인 건강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 요인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예방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며, 일반 시민들과 전문가들 간의 협력이 절실하다.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고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2. 본론 (탐구 내용 및 방법, 결과 정리)

1) 탐구 방법

본 탐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새로운 지표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탐구 방법은 여러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먼저, 산전 및 주산기 노출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 ADHD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을 식별하고 그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환경적 위험요인들을 조절 가능한 개체 수준의 환경요인과 국가,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한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특히, 특정 물질들과 ADHD의 연관성을 탐구할 때에는 납, 망간, 수은, 니코틴, 알코올, 폴리염화비페닐(PCB), 다이옥신 등과 같은 주요 물질들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실시하여 각 물질이 ADHD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에이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동향도 체계적으로 리뷰한다.

생물학적 기전과 환경요인의 결합을 탐구할 때에는 ADHD와 관련된 생물학적 기전에 주목하면서 특히 납과 니코틴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들이 ADHD의 발병 메커니즘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고 두 영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과불화화합물(PFC)의 환경적 영향과 어린이 건강에 대한 연구에서는 PFC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확인하고, 특히 어린이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중심으로 PFC의 뇌 세포에 미치는 영향과 어린이의 행동장애와의 관련성을 탐구한다. 국내에서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PFC가 어린이의 행동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고려해본다.

2) 환경성 질환의 종류와 원인 1: 정신과적 관점

과거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산전 및 주산기 노출에 주목해왔다. 이 연구들에서 강조되는 환경적 위험요인은 임신 중 모성 흡연, 음주, 환경 독성물질 노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등이었다. 주산기 요인으로는 저체중 출산과 같은 주산기 합병증들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또한 산후 요인으로는 환경 독성물질과 식품 첨가물이 주요 관심사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환경적 위험요인들은 조절 가능한 개체 수준의 환경요인과 국가나 사회적 개입, 즉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한 환경요인들로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신 중의 모성 흡연이나 음주는 전자에 해당하며, 환경 독성물질에 대한 노출은 후자에 해당한다. 특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의 연관성에 주목된 물질로는 납, 망간, 수은, 니코틴, 알코올, 폴리염화비페닐(PCB), 다이옥신 등이 있다. 최근에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에이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도 ADHD 증상 수준과 혈중 납 수치 또는 요중 프탈레이트 대사산물 수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가 있다.

ADHD와 관련된 생물학적 기전 및 환경요인을 고려할 때, 특히 납과 니코틴이 주목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납과 니코틴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병태생리와 관련된 전전두엽-선조체(prefrontal-striatal) 신경회로의 기능 이상과 연관이 있다. 또한 ADHD의 주요 후보 유전자로 알려진 도파민 수용체나 도파민 운반체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

3) 환경성 질환의 종류와 원인 2: 신경학적 관점

과불화화합물(PFC)은 자연환경에서 발생하지 않는 합성수지로, 주로 불소수지 고분자 화합물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며, 특히 PFC 중 한 이성질체인 perfluorooctanoic acid (PFOA)는 테플론(teflon) 등의 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카펫, 의류 등의 방수 효과에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PFC의 널리 사용되는 특성으로 인해 환경 중에 퍼져나가면서 인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PFOA는 발암성 뿐만 아니라 면역계의 장기인 흉선 및 비장의 정상적인 작용을 억제하여 면역계 기능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 높은 지용성으로 인해 태반을 통과하여 기형을 유발하고, 혈액뇌장벽을 통과하여 뇌에 축적되어 갑상선 호르몬 등의 신경계 호르몬에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태어나 영유아기의 갑상선 호르몬 변화는 두뇌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억력 감퇴, 학습장애 등과 같은 신경독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PFC는 갑상선 호르몬 이외에도 세포 내 칼슘 항상성, 신호전달 체계 및 시냅스 유연성에도 영향을 주어 신경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PFC 이성질체인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PFOS), PFOA, perfluorohexane sulfonate (PFHxS) 등이 뉴런 세포의 사멸을 촉진하고 중요 신호 전달체계를 저해하는 것이 확인되어, PFC가 중요한 신경독성 환경오염물질임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의 행동장애 질환과의

높은 유병률은 PFC 노출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태아 상태에서의 노출이 행동이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있다.

그러나 PFC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도 하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더욱 심화되어야 하며, PFC 사용에 대한 규제와 대안의 탐색이 필요하다. 환경성 물질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더 진전됨에 따라,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3. 결론 (결과 분석 및 느낀점)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환기를 자주 해 실내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충분한 환기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필수일 뿐 아니라 환경성 질환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오전, 오후, 저녁 등 하루 세 번 마주 보는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외부 공기와 완전히 교환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는 대기가 정체돼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쌓여 있을 수 있으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이전에 환기하는 것이 좋다. 환기뿐만 아니라 환경성 질환을 주로 유발하는 집먼지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침구류나 섬유 소재의 커튼 등을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쌓이기 쉬운 커튼과 카펫은 수시로 털고 자주 세탁하며, 침구류는 물 세탁한 후 햇빛에 잘 말리고 털어 사람 몸에서 떨어진 각질이나 미세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해줘야 한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먹을거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인스턴트식품이나 청량음료, 화학조미료 등을 피하고, 식용유나 버터, 마가린 등으로 조리한 음식도 삼가해야 합니다. 실내에 공기 정화 효과가 있는 식물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는 탁한 실내공기를 정화해주고 산뜻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도와준다.

결론적으로,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제거와 주기적인 환기 및 청소가 필수이다. 환기는 예방 및 조기 개입과 연관된 환경요인에 우선적으로 주목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질환의 범위를 정의하고, 환경요인에 대한 평가와 관리 시점을 결정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환경성 질환의 종류와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고, 진로와 관련된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 피해 조사에 대한 추가 탐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탐구를 통해 환경성 질환과 그 예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환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제로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특히, 미세먼지와 집먼지진드기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예방 수단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성 질환의 범위와 관리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예방과 조기 개입이 관련된 환경요인에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것은 의사나 연구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환경성 질환과 관련하여 진로 및 연구 분야를 고려하는 데에 큰 영감을 받았다. 환경오염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연

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분야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탐구를 통해 얻은 지식과 통찰은 미래에 걸쳐 환경과 건강에 대한 나만의 기여를 찾아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환경성질환 예방으로 피해를 줄이자! [의학신문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380>

환경성 질환, 어린이가 더 취약한 이유 [케미컬뉴스 기사]

<http://www.chemic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6>

대기오염물질이 환경성질환에 미치는 영향 [서울연구원 자료]

https://www.si.re.kr/si_download/62871/26192

[생활속 과학이야기] 우리 일상 속 환경성 질환 [대전일보 기사]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7222>

보이지 않는 곳에서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성 질환 [디몰 칼럼]

<https://dmall.co.kr/product/%EB%A7%A4%EA%B1%B0%EC%A7%84%EB%B3%B4%EC%9D%B4%EC%A7%80-%EC%95%8A%EB%8A%94-%EA%B3%B3%EC%97%90%EC%84%9C%EA%B1%B4%EA%B0%95%EC%9D%84-%EC%9C%84%ED%98%91%ED%95%98%EB%8A%94-%ED%99%98%EA%B2%BD%EC%84%B1-%EC%A7%88%ED%99%98/235/>

전세계 사망률 40%는 환경오염이 원인 [메디컬뉴스 기사]

https://www.chamc.co.kr/health/guide/newscontent.asp?hn_index=1497&ct_id=319&page=1

아픈 환경이 낳은 ‘환경성 질환’ 극복하기 [공공보건포털 기사]

<https://www.g-health.kr/mobile/bbs/selectBoardArticle.do?bbsId=U00186&nttId=292242&lang=&searchCndSj=&searchCndCt=&searchWrd=&pageIndex=1166&vType=A>

환경성질환을 극복하자 [의학신문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471>

환경성질환의 이해 및 예방법 [고려대학교 논문]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JAKO201467352677839>

환경성질환 알아봐요 [환경보건교육 자료]

<https://www.keep.go.kr/chemistory/541>

□ 붙임

<자기평가서>

탐구 동기	어떤 점이 궁금해서 탐구하였는가? 환경성 질환에 대한 탐구 동기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환경성 질환은 개인의 생활 습관을 넘어서 환경
-------	--

	<p>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건강 문제로, 이는 우리 주변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환경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환경성 질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인식되어왔으나, 특히 19세기 이후 산업화와 공업화로 인해 대기, 수질, 토양 오염 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과 화학물질의 다양한 사용으로 새로운 환경요인들이 등장하면서, 만성 대사성 질환, 암, 호흡기질환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p> <p>이러한 배경 속에서 환경성 질환에 대한 탐구는 현대 사회의 건강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더 나아가, 인간 수명 증가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만성 질병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환경적인 영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성 질환에 대한 탐구를 통해 얻게 될 지식과 통찰은 미래 건강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p>
<p>탐구 과정</p>	<p>탐구 과정 간단하게 요약 및 정리</p> <p>환경성 질환의 탐구를 시작한 동기는 환경인자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인 환경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기 위함이다. 환경성 질환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애로, 이는 개인의 생활 습관과 직업 활동을 넘어서 환경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특히 19세기 이후 산업화와 공업화의 증가로 대기, 수질, 토양 오염 등이 급증하면서 환경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과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요인이 등장하면서, 만성 대사성 질환, 암, 호흡기질환과 같은 질병의 발생에 환경적 요인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p> <p>이어서, 정신과적인 관점에서 환경성 질환을 살펴보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대한 연구가 주로 산전 및 산간기 노출에 주목하며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임신 중 모성 흡연, 음주, 환경 독성물질 노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위험요인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조절 가능한 개체 수준의 환경요인과 국가,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시스템적인 접근으로 구분하고 있다. 납, 망간, 수은, 니코틴, 알코올, PCB, 다이옥신과 같은 물질들이 ADHD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에이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p> <p>신경학적인 관점에서는 과불화화합물(PFC)에 주목하고 있다. PFC는 자연환경에서 발생하지 않는 합성수지로, 주로 불소수지 고분자 화합물의 생산에 사용되며, 활용 범위가 광범위하다. 특히 PFOA는 테플론 등의 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환경 중에 퍼져나가면서 인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PFOA는 발암성이며 면역계의 장기인 흉선 및 비장의 정상적인 작용을 억제하여 면역계 기능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태어나 영유아기의 갑상선 호르몬 변화에도 영향을 주어 뇌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행동장애와의 높은 유병률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PFC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도 하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p>
<p>탐구 결과</p>	<p>탐구 결과 간단하게 요약 및 정리</p> <p>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주요 요령은 근본 원인 제거와 환기, 청소 등의 노력입니다. 충분한 환기는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방법으로,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이전에 환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집먼지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침구류와 커튼 등을 깨끗이 관리하며, 미세먼지가 쌓이기 쉬운 표면은 자주 청소해야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예방을 위해서는 영양 신경을 써야하며, 환기 외에도 공기 정화 효과가 있는 식물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p> <p>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 제거와 환기, 청소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로와 관련된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 피해에</p>

	<p>대한 추가 탐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성 질환의 범위를 정의하고, 환경요인에 대한 평가와 관리 시점을 결정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환경성 질환의 종류와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p>
총평	<p>탐구하며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했는가?</p>
	<p>탐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부분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의학적, 생물학적 용어와 개념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참고 자료를 활용하고 전문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문 용어와 개념을 순서대로 학습하고 기초적인 지식을 쌓아가며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 친구들의 다양한 시각을 수용하며 이해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일상적인 예시나 비유를 활용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반복 학습을 통해 어려운 내용을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어려웠던 부분을 극복하고 탐구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주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습니다.</p>
	<p>탐구를 통해 스스로 우수하다고 생각한 점은?</p>
	<p>-환경성 질환을 다루면서 정신과학적, 신경학적 관점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질문을 탐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제를 폭넓게 이해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했습니다.</p> <p>- 주요 논문과 문헌들을 찾아 기존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다양한 연구 방법과 결과를 종합하여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p> <p>- 환경성 질환에 대한 탐구과정에서 모순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 탐구의 탄력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끊임 없이 고민하며 학습하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p> <p>- 전문 용어와 개념에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참고 자료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자신의 말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p> <p>- 글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논리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어 독자를 설득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문장 구조와 단락 간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p>
	<p>탐구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p>
<p>먼저, 다양한 전문 분야의 통합적 이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환경성 질환은 정신과학적, 신경학적, 환경학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된 복합적인 주제로, 이를 탐구하면서 각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헌 조사와 비판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기존 연구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결과를 비교하며 모순된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과학적 연구 능력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 분석, 결과 도출 등 과학적 연구의 기본 원리를 익히면서, 실질적인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환경성 질환과 그 예방에 대한 지식을 통해 개인 차원에서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적 표현과 설득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주제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며 논리적인 주장을 구성하는 데에 노력하면서 글 쓰기 및 토론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p> <p>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 분야의 이해력, 문헌 조사 및 비판적 사고, 과학적 연구 능력, 환경 보건 인식, 논리적 표현 및 설득력 등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p>	